

---

## 바다 위에 솟은 ‘큰 바위 얼굴’ 해암 김형규 선생님

이광정 · 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 교수

---

올해는 국립국어원의 전신인 국어연구소 초대, 2대 소장을 역임한 해암 김형규 박사(1911~1996) 탄신 100돌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는 학술 대회가 재직하였던 서울대 국어교육과의 주관으로 6월 4일 성대히 열려 해암의 학문과 생애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새국어생활》에서도 ‘국어연구소’ 소장으로 연구소의 토대를 마련한 해암 선생의 학덕을 제자 이광정 교수의 글을 통해 잠시 추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미국 사우스다코타 주(州)의 러시모어 산(山) 정상에는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과 제퍼슨, 링컨, 루스벨트 등 네 대통령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해발 1720m에 위치한 18m 높이의 거대한 조각상은 미국인의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상징물입니다.

바다에 우뚝 솟은 바위, 해암(海巖) 김형규(金亨奎) 선생님은 원산이 낳은 큰 인물로 한평생을 학문 연구와 교육 활동에 전념하신 뛰어난 학자이며 지조 높은 선비입니다. 제자들을 대함에 있어, 학문 세계에서는 엄한 분이셨으며, 어려운 인생길에서는 자혜로운 어머니 같은 분이셨습니다. 선생님을 추모하는 제자들의 문집인 《스승의 향기》(2007. 10.)라는 책자에서 저는 선생님을 ‘엄이자(嚴而慈 엄하나 자애롭고), 자이엄(慈而嚴

자어로우나 엄한)’ 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중한 책자에는 선생님의 빼어난 학문 세계와 선생님에 대한 사무치는 사모의 정, 그리고 많은 사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에 엄정하셨던 선생님에 대한 예화로 학점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선생님께서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치르고 나면 꼼꼼히 채점을 하시어 매번 답안지를 본인에게 돌려주셨습니다. A학점을 받은 극히 소수의 사람에게는 큰 자량이었지만, 대다수가 문학 지망생인 학생들에게는 끔직한 공포였습니다.

음력으로 1911년 7월 21일에 출생하셨으니 금년이 탄신 100주년입니다. 우리 제자들은 스승님의 학덕을 기리기 위하여 ‘해암 탄신 100주년 기념 학술 대회’를 비롯하여 ‘기념 논문집 간행’, ‘묘소 참배’, ‘해암 탄신 100주년 기념 테니스 대회’, ‘해암 학술상 시상’ 등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략하게나마 선생님의 생애와 학덕을 정리해 보고 선생님에 대한 그리운 추모의 정을 옮겨 보겠습니다.

## 선생님의 생애

선생님은 고향인 원산에서 보통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유학하여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조선어문학과’를 1936년에 졸업하셨습니다. 그해에 전주사범의 교유(敎諭 교사)로 취임하고, 이후 고려대학교에서 8년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24년간 교수로 봉직하셨습니다.

정년 후에는 서울대 명예 교수로 여러 대학 강단에서 강의의 하심은 물론 학자로서 가장 명예로운 ‘종신 학술원 회원’이 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984년 3월에는 문교부 산하 ‘국어연구소’(국립국어원의 전신)의 소장직을 맡아 2대까지 4년간 우리말 연구와 바른 사용에 초석을 쌓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국립국어원’은 세계화 시대에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 모두의 바른 언어생활을 선도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 이것을 나는 해암 형에게서 발견한다. 석숭(石崇)의 부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조식을 난기(難期)할 지경은 아니다. (중략) 곽자의(郭子儀)의 자복(子福)에는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남(五男)의 용과 봉을 슬하에 거느리고 있다. 이 위에 금술이 진진한 현부인의 반려를 해우하고 있음에랴. (중략) 이 밖에 해암 형이 누리는 또 한 가지 복이 있으니, 그것은 형의 인격을 숭앙하고 형의 학통을 이어 받드는 제자, 후배 또는 동료들의 편편 주옥같은 논문집의 증정이다.

- 이희승(1971), 《김형규 박사 송수 기념 논문집》序

‘작은 거인’이라 칭송을 받으시던 경성제대 선배이신 일석(一石) 이희승(李熙昇) 선생님의 글입니다. 해암 선생님의 다섯 아드님은 모두 서울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 아버님 살아생전부터 지극껏 ‘해암장학회’와 ‘해암배 테니스 대회’를 이끄는 호자들입니다. 재덕을 겸비하신 사모님과는 회혼(回婚)이 되는 해까지 해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학덕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으니 이는 선생님의 큰 자랑이시며 또한 우리 제자들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강점기 36년 중 34년을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야 했고, 첨단 교육 받은 지성인으로서의 민족적 사명감과 현실의 괴리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25 동란으로 인하여 두고 온 산하, 빼앗긴 고향 원산에 두고 온 어머니를 그리며 살아야 했던 후반생은 슬픈 회한의 세월이었습니다.

선생님은 1939년 7월 조선일보에 발표한 <조선어의 과거와 미래>라는 글로 인하여 전주사범의 교유직에서 파면을 당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의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가 가져다 준 단순한 전리품이 아니라 2천만 민중의 절규와 염원의 결실입니다. 기미 독립 선언, 청산리 싸움, 조선어학회 사건 등등 수많은 우국지사들은 조국 광복을 위해 온몸과 정신을 바쳤습니다. 일제 말기의 조선어 말살 정책에 항거하여 민족혼을 일

깨우고 우리말을 지키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신 많은 분들 중에 해암 선생님도 앞자리에 계십니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에 모교인 '원산중학교'를 재건하고 교장으로 취임하십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의 뜻에 반하는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펼치다가 체포되어 1개월간의 옥고를 치르시고는 월남하게 됩니다. 이는 선생님의 강렬한 자유 민주주의적 사상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일제의 발악이 극도에 달하여 압박은 날로 심해지고, 내가 맡은 조선어 시간도 깎고 줄어들어 이제는 그 명이 풍전등화같이 깜박거리고 있을 때, 학교에 가는 것이 마치 전쟁터에 나서는 심정이고, 시간에 들어가면 울분을 참기 어려웠던 그때 일이다. 우리말, 우리 글자만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어떻게 하면 빼앗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깨닫게 하고, 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북돋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가끔 옛 시조와 또 시도 적어 주고 가르쳐 준 일이 있었다. (중략) 20년 전 조국을 잃은 백성이 마음속에 숨은 슬픈 뜻을 붙여 보던 고향의 시가, 조국을 찾은 오늘날 정말로 고향을 빼앗긴 사람의 슬픈 시로 바뀌어질 줄은 몰랐었다. 잃어버린 고향! 쪼개진 조국! 갈라진 겨레의 운명!

- 수필 <고향은 생각해서 무엇하리?> 중에서

## 선생님의 학문 세계

선생님은 국어학과 관련된 수많은 학문적 업적을 이룩하셨습니다. 5종의 저서에 증보에 증보를 거듭하여 13권의 독창적인 저서를 남기셨고, 크고 작은 논문 37편을 남기셨습니다. 순수 학문적인 상아탑 속 연구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국어 교육 및 어문 정책 연구에도 앞장서서 실천한 분이셨습니다. 선생님의 학문 세계는 다양하나 ① 국어사 연구, ② 고어 연구, ③ 방언 연구, ④ 국어 교육 및 어문 정책 연구로 대별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1. 국어사 연구

선생님의 대표적인 학문 분야는 우리말의 역사에 관한 국어사(國語史)입니다. 이를 구체화하는 연구로 ‘고어 연구’와 ‘방언 연구’에 많은 심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기록으로 남은 문헌어(文獻語)가 잠자는 옛말의 모습이라면 방언(方言)은 살아 숨 쉬는 생생한 살아 있는 옛말의 모습입니다. 방법론에서도 폭넓게 일본인 학자들의 이론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서구의 비교 언어학인 방법론을 일찍이 도입한 것은 선구적입니다. 한 예로 우리 인간의 언어는 길어지려는가, 짧아지려는가의 논제에서,

- 장형화(長型化)의 예: 곁→물곁(波), 긴→기둥(柱), 노→노끈(繩),  
담→담노(氈褥), 돛→돛자리(席), 돌→돼지(豚), 앓다→빼앗다,  
일→일즉→일찍이
- 단형화(單形化)의 예: 거우루→거울(鏡), 수블→술(酒),  
가히→개(犬), 바얌→뱀(蛇), 아이→애(兒), 오이→외(瓜),  
우이→위(上), 거이→게(蝦)

해암은 장형화를 주장하십니다. 국어의 음운 변화 현상은 대부분 어휘 외형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단형화되었으나, 의미의 안정을 위하여 다시 장형화되었다는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근거를 논문으로 밝히셨고, 아래의 쟁점도 밝혀 주셨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변해 가는 커다란 경향 중 하나는 노력을 절약하려는 경제적 본능에 의한다.”<sup>1)</sup>

---

1) Bloomfield, L.(1933) *Language*, Holt, Reinhart, New York.

“언어의 어휘는 처음엔 다음절어로 된 장형에서 단형으로의 길을 걸어왔다.”<sup>2)</sup>

“언어는 1음절어가 되면 어형이 불안정하고 또 동음어가 되기 쉬워 이를 피하기 위하여 어형을 길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sup>3)</sup>

학술적인 이론 연구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 하와이 소재 미국 동서문화 연구소 초청 특별 연구원으로서 10개월간의 연구, 미국 필라델피아 국제 동양학자회의 참석, 서울대학교 하버드 연경(燕京)연구소(Harvard Yenching Institute)의 New program 위원 임명 등은 선생님의 학문적 활동의 폭을 말해 줍니다.

국어사 분야에 관한 4권의 단행본을 저술하셨는데 대표적인 것이 《증보 국어사 연구》(1969)입니다.

## 2. 고어 연구 -고시가의 주석

선생께서는 국어사를 해결하려는 한 방편으로 소설 문자의 음운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고대 시가에 대한 주석에도 많은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단행본으로 《고가주석(古歌註釋)》(1955)과 《고가요주석(古歌謠註釋)》(1968)이 있습니다. 고전 문학의 주석은 고전 문학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고어를 연구하는 국어학자들의 주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대표적인 33편의 시가에 대하여 철저하게 전거를 제시하며 문법적 설명과 함께 어휘의 의미를 주석하셨습니다. 이는 고전 문학 연구자들이 우리 고전을 해독하는 데 있어 자의적인 어구 해석으로 시가의 본질을 그릇 해석

---

2) Jespersen, O.(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George Allen & Union, London.

3) Vendryes(1921), *Le langage*.

하는 잘못을 바로잡아 주려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다른 한편은 선생께서 가졌던 우리 시기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비롯된 연구라 할 수 있습니다.

### 3. 방언 연구

국어사 연구의 한 방편으로 시작된 방언 연구는 한국 방언학 연구의 큰 봉우리를 이루었습니다. 그 결정판이 《한국방언연구》(1974)입니다. 민현식 교수의 글을 통하여 연구 성과를 알아보겠습니다.

국어사 연구는 필연적으로 방언에 남아 있는 고어의 흔적을 연구하게 되므로 선생은 58년의 안면도 조사를 비롯해 틈틈이 전국을 돌며 방언 조사를 하여 방언 카드를 작성하셨으며, 10여 년 각고의 고생 끝에 《한국방언연구》(1974)라는 역저(力著)를 남기셨다. 이 책은 상하권 합본으로 상권은 천문, 지리, 농업, 어업 등 주제별로 주요 어휘와 문법 형태를 1,458개로 항목화한 주제별 방언사전이며, 하권은 방언 연구의 전범을 보인 8편의 방언 연구 논문으로 엮여졌다. 이 사전은 경성제국대 시절 스승으로 국어 방언을 집대성한 소창진평(小倉進平)의 방언사전을 계승, 극복하기 위한 필생의 업적으로 1980년대 한국정신문화연구원(韓國精神文化研究院)의 전국방언자료집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선생은 평소 고향을 가지 못해 북한(北韓) 방언(方言)을 조사 못 하는 아쉬움을 말씀하시곤 했는데 선생이 남기신 학문의 깊고 너른 세계는 이런 망향의 한을 승화시켜 국어학의 불모지(不毛地)를 개척한 결과라 할 수 있다.

- 민현식(2004), 《앞서 가신 회원의 발자취》, 대한민국 학술원

### 4. 국어 교육 및 어문 정책

선생의 어문 정책은 이론을 앞세우기보다는 언어의 사회적 현실 특히

다수 언중의 편의를 기반으로 하는, 실용성이 돋보이는 사고와 언어관에 바탕을 두었습니다. 특히 표준말 및 표기법 문제에서 그러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언중과 관계가 깊고 선생께서 아쉬워하시던 표기법 관계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① 한글 자모의 명칭 중 ‘ㄱ, ㄷ, ㅅ’을 ‘기옥, 디은, 시웃’으로 통일하자는 주장

② ‘-오’와 ‘-요’의 문제에 관해서는 발음 나는 대로 적을 것을 주장

최세진(崔世珍)(1527)의 《훈몽자회(訓蒙字會)》에는 자모 명칭이 마땅히 ‘기옥, 디은, 시웃’으로 되어야 할 것이나 ‘기역(其役), 디근(池末), 시웃(時衣)’으로 이름 붙여야 했던 것은 마땅한 한자음 표기가 없기에 반절(反切)로 표기한 것이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을 중시하고 혼란을 막기 위해서’란 반대편 주장이 수적으로 많아서 명칭 통일이 좌절되었습니다.

한글 자모 14자의 명칭이 “기옥, 니은, 디은, 리을, 미음, 비읍, 시웃, 이응, 지읒, 치읒, 키읒, 티읒, 피읒, 히읒”으로 통일되지 않은 것은 안타깝습니다. 특히 세계화 시대에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더욱 안타깝습니다. 북한에서는 오래전부터 통일된 명칭을 쓰고 있음도 주목할 일입니다.

②의 ‘-오’와 ‘-요’의 문제에서 발음대로가 아닌 ‘-오’로 적게 되어, 표기법 개정 시행 후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장 많이 틀리는 어려운 표기법이 되었습니다. ‘-하세요, -하시오’, ‘-마세요, -마시오’ 등에서 발음은 똑같이 ‘요’로 나는데 이를 구분해서 ‘오’로 적어야 한다는 규정은 언어 현실성을 도외시한 학자들의 원칙론입니다. 1993년에 집사람이 아파 입원하였을 때 ‘환자 병원 수칙’이라 하여 주는 글을 받아 보니, 수십 군데 모두 ‘-하시오, -마시오’로 표기되어 수정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아



직도 공공 기관 게시물에까지 그런 표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경원대학교 사회봉사단의 무료 한글 교실인 '집현전반'에서 이른바 문맹자들에게 16년째 한글 교육을 제자들과 맡아 하고 있습니다. 50, 60대 어머니들이 주축인 이 교실에서 가장 어려운 수업은 받아쓰기입니다. 잘못 받아쓰면 큰 잘못이나 저지른 것처럼 무안해 얼굴을 붉힙니다. 이분들이 쓴 글을 모아 《꿈이 이루어졌어요》(2008)란 문집을 내기도 했습니다.

해암 선생님께서 주장하신 가능한 한 쉬운 표기법, 생동하는 현실 언어를 우리의 표준어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에 찬성합니다. 젊은이의 말로 표준어를 제정해야 한다는 대전제에 찬성합니다. 언어는 살아 숨 쉬는 생명체와 같이 변화합니다.

“표준말 제정을 위해 국가적 기관을 상설하고, 여기서 부단히 조사 연구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 이것을 토대로 심의 토의하여 결정을 지어 가야 한다.”라는 선생님의 주장이 현실화되어 오늘의 '국립국어원'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 스승의 향기

선생님께서서는 향기로운 분이셨습니다. 생전에 수필집 네 권을 남기셨습니다. 《계절의 향기》(1963), 《인정의 향기》(1971), 《인생의 향기》(1981),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월은 가고》(1996)입니다.

제자들은 스승님을 추모하여 서거하신 지 11년 차인 2007년 가을에 《스승의 향기》란 문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모두 48편의 글에는 사무치는 그리움과 추모의 정이 담겨 있습니다. 대표로 이응백 은사님의 글과 발간사 일부를 다시 선생님께 올립니다.

선생은 안온(安穩)히 고여 있는 비취(翡翠)빛 수면에 소리 없이 웃음 짓는 한 떨기 수련(睡蓮), 그 가느스름한 눈길에 가을 물결같이 예지(叡智)가 흐른다. 이 티 없이 고요한 선비가 자근자근 무어 높이 도 이룩한 학문(學問)의 탑(塔), 그 근기(根氣)의 원천(源泉)은 어디서 연유(緣由)한 것일까. (중략) 아마도 원산(元山) 앞바다 긴 둑 그 끝 쪽에 끊임없이 부딪쳐 부서지고 또 부딪쳐 오는 그 억센 물결 속에서 의연(毅然)히 버티는 하나의 바위. 그리하여 해암(海巖)이라 자호(自號)한 그 바위가 가장 큰 근원(根源)일시 분명하다.

- 이응백, 《스승의 향기》 중에서

그리움은 사람다움의 표징(標徵)이다. 그리움은 사람과 사회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한다. 그래서 그리움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해암(海巖) 김형규(金亨奎) 선생님께서는 11년 전 우리를 떠나시면서 선생님의 따뜻하심과 끈으심을 그리움으로 바꾸어 우리 마음속에 오롯이 담아 놓으셨다. 세월이 가도 빙긋이 웃으시던 온화하신 선생님의 모습은 여전히 생생하기만 하다. 향원익청(香遠益清)이라고나 할까? (중략) 선생님에 대한 그리운 마음들을 모아 문집으로 엮었다.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동문회장 최현섭

엄하나 자애로우셨던 해암 김형규 선생님! 1996년 12월 6일 홀연 떠나셨지만, 우리들 가슴속 깊이 '큰 바위 얼굴'이 되어, 우리의 삶에 바른 모범이 되어 주신 선생님을 닮기를 제자들은 소원합니다. 꿈에 그리던 고향에도 가시고, 과수원을 지키시던 어머님과 그리고 뒤에 따라가신 유기주(柳奇珠) 사모님과 하늘나라에서 늘 평안하십시오.